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거문오름이 만들어 낸 용암동굴은 자연이 만들어낸 훌륭한 걸작이다. 그동안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 가치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유네스코에서도 인정받은 제주의 자연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제주만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거문오름길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0-1 ~ 조천읍 선흘리 475-113(약 0,6km)

우진오름길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853-7 ~ 조천읍 선흘리 1813(약 1,5km)

우진길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4-17 ~ 조천읍 선흘리 1965-11(약 0,6km)

선흘민오름길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59-8 ~ 조천읍 선흘리 산129-9(약 1,4km)

선교로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42-5 ~ 조천읍 교래리 산40(약 8,3km)

거문오름길 | 거문오름과 세계자연유산센터

선홀2리 보건소 뒤편으로 나 있는 **거문오름길**은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을 의미하는 길이다. 제주도는 거문오름과 같이 마을 곳곳에 자리한 오름을 비롯해 한라산, 해안가의 주상절리 등 각양각색의 절경이 기이한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제주의 용암동굴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보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만장굴과 용천동굴은 웅장한 규모와 더불어 독특한 형성과정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만장굴과 용천동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거문오름의 역할이 컸다. 거문오름에서 분화한 용암이 월정리 해안까지 흘러가면서 차례로 용암동굴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동굴들을 거문오름용암동굴계라 부른다.



거문오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는 만장굴, 용천동굴, 김녕굴, 뽕뒤굴, 당처물동굴 등이 해당된다. 이 동굴들이 초창기 형성되었을 때는 모두 이어진 하나의 동굴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굴 천정이 무너져 막히면서 여러 개의 동굴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 동굴 중에 현재 만장굴의 일부 구간만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독특한 가치는 제주도가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문오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하루 300명 정도로 등반 인원을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거문오름을 오르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해설사와 함께 등반을 하게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거문오름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해 준다. 거문오름 바로 아래에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비롯해 세계자연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있다. 이곳 전시관에서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다양한 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우진오름길 / 우진길 / 선흘민오름길 | 우진제비오름과 선흘민오름

거문오름의 남쪽에는 우진제비오름이 있다. 우진제비오름 아래는 이 오름의 이름을 딴 **우진오름길**이 지난다. 이 오름은 우진악이라고도 불렀는데, 오름의 모양이 날아가는 제비를 닮았다고 해서 우진과 제비를 합쳐 우진제비오름이라 부르고 있다. 오름을 오르다보면 자그마한 우진샘을 만난다. 깊은 산 속의 웅달샘처럼 아담한 이 물은 사시사철 물이 나와서 주변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우진제비오름에서 말과 소를 방목하며 길렀다. 오름의 정상에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거문오름을 비롯해 주변의 오름들을 조망할 수 있다. 우진제비오름 인근에 있는 마을은 오름의 이름을 따서 우진동이라 불렀다. 오름의 남쪽에 이어지는 **우진길**은 이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거문오름의 서쪽으로는 민오름이 있다. 제주에는 민오름이라는 이름의 오름이 여럿 있는데 **선흘민오름길**은 선흘에 있는 민오름으로 이어지는 길을 의미한다. 민오름이라는 이름은 민둥산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 오름에는 꽤 많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인근에 있는 오름 중에는 가장 높은 오름이어서 멀리 교래곶자왓 지대까지 주변의 경치가 잘 내려다 보인다.

선교로 | 교래리

중산간동로에서 갈라져나간 **선교로**는 선흘리에서 교래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교래리는 한라산 동쪽의 중산간 마을로 옛날에는 다리를 뜻하는 ㄷ리라고 불렀다. 마을에 있는 암반이 다리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한자표기로 교래(橋來)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탐라순력도>의 교래대렵 편에 보면 교래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보면 18세기까지만 해도 교래 지역은 사냥을 하며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교래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있어 삼다수마을이란 테마로 마을을 알리고 있다.